

중국-ASEAN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개요

□ 최근 중국과 ASEAN 국가¹⁾들과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 지난 10월 30일 “중국·ASEAN 대화관계 수립 15주년 기념 정상회담”과 “제 3회 중국·ASEAN 무역 박람회(CAEXPO)”, “제 3회 중국·ASEAN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담”이 동시에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 “중국·ASEAN 대화관계 수립 15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温家宝)와 ASEAN 10개국 정상은 기존에 합의한 2010년 중국·ASEAN FTA(ACFTA) 정식 출범을 재차 확인하고, 중국 남서부를 포함한 역내 지역 개발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제 3회중국·ASEAN 무역박람회(CAEXPO)”는 교역액 기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국·ASEAN 경제협력에 교량 역할을 수행함.

□ 중국과 ASEAN간 경제협력이 2010년 ACFTA 출범을 앞두고 가속화되고 있어 FTA의 성공적인 구축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1) ASEAN 10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표 1> 중국-ASEAN 주요 경험 과정

1991년 7월	- 중국 외무장관이 제 24회 ASEAN 외무장관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 - 중국과 ASEAN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접촉 - 중국과 ASEAN의 대화관계 시작
1996년 7월	- 제 29회 ASEAN 상임이사회에서 중국을 기존의 "협상 대상" 파트너국(磋商伙伴国)에서 "전면적인 대화" 파트너국(全面对话伙伴国)으로 승격시킴
2000년 11월	- 중국이 ASEAN+3 정상회담에서 중국·ASEAN FTA를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
2001년 11월	- 제 5차 중국·ASEAN 정상회의에서 주룽지(朱镕基)총리가 10년 이내에 중국·ASEAN FTA(ACFTA)를 설립할 것을 제의
2002년 11월	- "중국·ASEAN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본 협의"가 이루어짐 - AC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 서명
2003년 10월	- 중국 "ASEAN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을 선포
2004년 10월	- 중국·ASEAN FTA 재화무역협 의 및 분쟁해결기구에 관한 협의 타결
2004년 11월	- 1차 "중국·ASEAN 무역박람회(CAEXPO)"가 중국 광시성 난닝에서 개최
2005년 7월	- 중국과 ASEAN간 "상품무역에 관한 FTA 협정" 발효
2006년 5월	- "중국·ASEAN 민간우호조직대회"가 북경에서 개최
2006년 10월~11월	- "중국·ASEAN 대화관계수립 15주년 기념 정상회담" 개최 - "제 3회 중국·ASEAN 무역 박람회(CAEXPO)" 개최 - "제 3회 중국·ASEAN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담" 개최

2. 중국ASEAN 경험 현황

가. 무역 및 투자의 급성장

□ 지난 15년간 중국과 ASEAN간 무역액은 연평균 2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중국·ASEAN 무역액은 연평균 38.9%의 속도로 성장함.

- 중국·ASEAN 무역액은 1991년 80억 달러에서 2005년 1,300억 달러를 돌파, 15년 사이 15배 성장하였으며 2005년 ASEAN은 중국의 4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

- 2006년 1~6월 중국·ASEAN 무역액은 7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

- 2005년까지 ASEAN의 對중국 실제 투자총액은 385.2억 달러, 반면 중국의 對ASEAN 투자는 10.8억 달러에 그쳤으나 최근 중국의 對ASEAN 투자가 연평균 60% 이상의 속도로 증가 추세

나. 중국·ASEAN 대화관계 수립 15주년 기념 정상회담 개최

- 10월 30일 중국·ASEAN 대화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이 난닝(南宁)에서 개최되었으며 원자바오(溫家宝) 중국 국무원 총리와 ASEAN 10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함.
-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중국·ASEAN 자유무역협정(ACFTA)을 2010년까지 정상적으로 발효시키기 위한 진행상황 점검과 지역 안보 및 평화를 위한 공동 대응이었음.
- 양측은 현행 평균 8.1%인 관세를 2007년까지 6.6%, 2009년 2.4%로 인하하고 2009년 말~2010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목표를 실현하여 2005년 1,304억 달러였던 양자간 무역총액을 2010년 2,000억 달러(2005년 대비 54% 증가)로 늘릴 계획임.
- 추이쿤(崔昆)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주 연구실 주임은 이번 정상회담이 ‘승전계후(承前启后: 과거를 이어 미래를 열다)’의 의미를 지닌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가

다. 제 3회 중국·ASEAN 무역 박람회(CAEXPO) 개최

- CAEXPO는 2003년 중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가 제7차 중국·ASEAN 정상회담에서 양측간 박람회 개최 제의를 계기로 2004년부터 매년 중국 난닝(南宁)에서 개최하고 있음.
- 이번 제 3회 CAEXPO(10월 30일 ~ 11월 3일)의 설치규모는 8만 평방미터에 달했고, 2,000여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개설된 부스는 총 3,663개

□ 제 3회 CAEXPO는 지난 1, 2회보다 더욱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총 교역액 12.7억 달러(전년 대비 10.2%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박람회를 통한 국제 경제협력은 모두 132건, 투자액 5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
- CAEXPO는 ACFTA 출범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중국과 ASEAN 경제 협력의 주요 플랫폼 역할을 수행
 - 특히 CAEXPO는 중국 서남부의 난닝에서 개최됨으로써 중국 서부지역, 남서부 지역의 해외협력 전략 실행의 주요 통로가 되었음.

라. 중국-ASEAN FTA(ACFTA)

□ 2004년 양측은 “조기자유화(Early Harvest)²⁾ 계획”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7월 20일부터 중국과 ASEAN간 “상품무역에 관한 FTA 협정”이 발효됨.

- 이에 따라 2004년에 이미 관세가 인하된 상품과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약 7천여 종의 상품이 관세하락 효과를 누리게 되었음.

□ 중국과 ASEAN은 기존 6개 회원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과 우선 2010년까지 서비스교역을 포함한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후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는 2015년까지 이를 완성할 계획임.

- 장샤오강(张小刚)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 부사장(部司长)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제 13차 중국-ASEAN 기업가 교류회”에서 중국·ASEAN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2) 조기자유화(Early Harvest); 공식적인 협상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협상 당사자가 자체 설정한 협상목표를 앞당기거나 당초 계획보다 앞서 실천하기로 당사국간에 합의한 경우. 중국·ASEAN FTA에서는 주로 농산물에 대해서 조기 관세 인하를 실시하여, 동 품목에 한해서 2004년부터 관세인하를 실시, 2006년부터는 영세율 적용

□ 중국·ASEAN FTA가 완전히 발족되면 인구 18억(세계 1위), 역내 국내총생산(GDP) 2조 3천억 달러, 역내 교역규모 1조 6천억 달러(세계 3위)의 거대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중국 및 ASEAN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외자유치 확대, 중국 서부 대개발 촉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제고 효과도 기대됨.

마. 기타

□ 무역 이외의 분야에서도 중국·ASEAN간 협력이 증대하고 있음.

- 중국, 베트남, 태국 3국이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지대인 광시성 충취(崇左)시에 발전용량 240만kw에 달하는 대형 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는 중국국전그룹(中国国电集团)의 주도 하에 2008년 1월에 정식 착공에 돌입하여 2010년 발전을 시작할 예정임.

- 중국과 ASEAN을 연결하는 첫 번째 고속도로(중국 광시성 난닝에서부터 베트남 국경까지 연결되는 길이 179.2km, 폭 8차선의 도로)가 2005년 12월 개통되었음.

◦ 이 고속도로의 준공은 중국과 ASEAN간의 무역 규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3. 전망 및 시사점

□ 중국·ASEAN간 상품무역에 관한 FTA협정은 협상 시작 이후 발효되기까지 채 3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음.

-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루지엔런(陆建人) 연구원은 이는 세계 300여개 FTA 협상 사례에서 보기 드물게 신속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힘.

□ 최근 양측간 경협 추진 상황을 볼 때 중국-ASEAN의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성숙한 것으로 평가됨.

- 광시대학 동남아연구센터 장원산(张文山) 부주임은 앞으로 15년 동안 중국 기업의 ASEAN 투자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빠른 시간내에 중국이 ASEAN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대 경협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참고 자료>

《财经时报》, “中国与东盟合作提速”, 2006.8.28

《第一财经日报》, “2010年自由贸易区计划未变中国投资东盟有望大规模起步”, 2006.10.31

, “商务部称中国东盟有望年底达成服务贸易协定”, 2006.11.10

《中国经营报》, “学习中国-东盟博览会: 扩展展览会的功能”, 2006.10.30

, “聚焦中国-东盟博览会”, 2006.11.6

《新华社》, “业内人士建议延长中国-东盟博览会展期”, 2006.11.2

, “第三届中国-东盟博览会闭幕 贸易成交12.7亿美元”, 2006.11.4

CAEXPO 관련 정보서비스(<http://www.caexpo.com>)

중국-ASEAN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담(<http://www.cabiforum.org>)